

## 메시아로서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예수님

### 세례 요한의 죽음

“그 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기므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가다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14:1-12)

본문의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라 불리는 헤롯대왕의 아들입니다. 분봉왕은 일부분을 맡아 다스리는 지도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헤롯대왕이 죽자 그의 많은 아들들 중 세 명이 헤롯대왕이 한 때 통치했던 지역의 지배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던 헤롯 안티파스는 나바티안 왕의 딸 아리타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다가 헤롯 필립의 아내, 즉 형의 아내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헤롯은 자기의 아내 아리타와 이혼을 하고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이런 부도덕한 문제로 세례 요한은 헤롯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내를 연고없이 버린 것이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 모두 다 옳지 않은 일이라고 직설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헤롯의 성미를 건드린 탓으로 헤롯의 미움을 산 요한은 감옥에 갇혀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선지자로 여겨졌으므로 헤롯은 그를 죽이는 일을 두려워했습니다. 고대 유대인에 관한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헤롯은 세례 요한의 인기를 시기하여 그를 죽이려고 했다고 합니다.

결정적으로 헤로디아는 헤롯이 몰락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녀는 몹시 잔인하고 사악한 여인이었습니다. 마침 세례 요한이 그들의 결혼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자 그녀는 복수의 기회를 엿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생일잔치에 자기 딸인 살로메로 춤을 추게 하였습니다. 살로메가 16, 17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헤로디아가 그런 춤을 추도록 시킨 것을 보아 그녀는 도덕적 관념이 없는 여자였음이 분명합니다. 그 춤에 만족한 헤롯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라고 했을 때 헤로디아가 미리 지시한 대로 살로메는 쟁반 위에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담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헤롯은 근심이 되었으나 이 요구를 들어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나중에 칼리굴라가 로마의 황제가 되었을 때 헤롯에게는 또 다른 아들

아그립바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이스라엘 몇 지역을 골라 그에게 통치권을 주었고 그에게 왕이라는 칭호를 주었습니다.

헤로디아는 자기 남편 헤롯 안티파스가 왕의 칭호를 받아야 한다고 부추겼습니다. 여왕으로 군림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을 로마로 보내 황제에게 왕의 칭호를 내려줄 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그립바가 이 사실을 먼저 알고 칼리굴라 황제에게 전갈을 보냅니다. “황제여 안티파스는 믿을 수 없는 자입니다. 언젠가는 당신에게 반기를 들 소지가 있는 자입니다. 높은 자리를 얻으려는 것이 그의 목적일 뿐입니다.” 이 보고가 믿을 만한 것이라고 판단되자 결국 칼리굴라 황제를 돈으로 매수하여 왕의 칭호를 얻어내려던 안티파스는 돈을 빼앗긴 채 옛 불란서 땅(Gaul)으로 추방당하고 맙니다. 헤롯이 추방당할 때 칼리굴라 황제는 헤로디아에게 머물러도 좋다고 하였으나 그녀는 남편과 함께 있기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한 일 가운데 유일하게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함께 불란서 땅으로 추방되었습니다. 불의에 대해 용감히 대항할 줄 알았던 하나님의 선지자를 처형했던 헤롯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6:16을 보면 예수님이 행한 일들에 관해 헤롯이 듣게 되었을 때 그는 세례 요한을 죽인 일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목 베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이 말만 보아도 헤롯은 세례 요한이 참된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었음을 알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좃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14:13-14)

빈 들이라는 것은 버려진 장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 사람이 살지 않는 호젓한 장소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가 이 소식을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좃아왔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건너편까지가 13Km 정도 밖에 안 되는 작은 호수였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벳새다나 게네사렛 같은 곳까지 건너가더라도 그리 먼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작은 배 한 척이 이 곳을 가로질러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을 향해 출발했을 때 사람들은 쉽게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었고, 사람들은 호수의 이편저편에서 보고 그곳으로 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잔인한 죽음을 당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조용한 곳에서 홀로 기도하며, 사태를 정리하며, 또 생각을 가다듬고 마음을 가라앉히려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구원을 바라며 나아온 많은 무리를 보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이 다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 온갖 질병과 문제를 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예수님은 항상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사실 이들 중에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직 자신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모여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그들을 나무라지 않으셨고 다가가서 치료하시며 아무 조건 없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무리들의 끼니를 걱정하며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14:19-20a)

여기 배불리 먹는다는 말은 헬라어로 “계절스럽게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오천 명이나 되었더라”(14:20b-21)

어떤 이들은 이런 기적에 관한 말씀을 접할 때 그대로 믿지 못해 기적적인 요소는 빼버린 채 그럴듯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긴옷을 입었고 손목에 긴 소매자락이 있었는데 이 소매자락 속에 빵이나 생선을 넣어가지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어 사람들은 모두 배가 고팠지만 이기적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소매자락 속에 넣어둔 자기 음식을 나누어 먹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소년이 나와 예수께 자기의 음식을 드리자 모두가 이 아름다운 장면에 감동을 받았고 각자의 소매에 넣어 둔 음식을 꺼내어 함께 나누어 먹었는데 이것이 너무도 풍족해서 열두 바구니나 남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럴 듯하나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는 사실과 다른 거짓입니다.

##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14:22-23)

이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날은 아주 힘든 하루였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당한 일을 듣고나서 어쩌면 꼭 필요할지도 모를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시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좇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병자를 치료하시고 함께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단가를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를 통해 다시 힘을 얻어야 될 필요를 느끼셨다면 우리와 같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아, 좀 쉬어야지, 내일 늦게까지 좀 자야지, 그래야 힘을 얻어서 열심히 일할 수 있지 않겠나’하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

저녁을, 아니 그 밤을 기도로 보내셨습니다. 기도는 진정 그분의 힘의 근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 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리므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 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14:24-25)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중간에서 역풍으로 말미암아 파도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다를 가로질러 가버나움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지중해로부터 갈릴리 바다로 연결되는 계곡이 있었습니다. 바람이 이곳을 지날 때면 보통 폭풍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 마침 제자들이 탄 배가 이 폭풍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계곡을 거쳐 빠져나오는 이 바람과 채찍질하듯 매서운 거센 파도와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다 한가운데 놓이게 되었고 심한 파도로 배가 거칠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실 때는 거의 아침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물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교”(14:27-31)

베드로는 자기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킨 동안은 잠깐이지만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물결이 그를 덮쳤을 것입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주위를 돌아보았을 것이며, 이로 인해 그는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즉시 구해 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받을 교훈은 우리의 눈을 항상 예수님께 고정시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위의 환경을 바라보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의 주위를 둘러싼 성난 파도와 같은 문제들, 그리고 어떤 해결의 실마리도 보이지 않는 상황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는 종종 깊은 물에 가라앉는 듯한 절망적인 환경과 만나게 됩니다. 그 때 우리는 바다와 바람과 파도도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전능하심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이기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이 그분에게서 떠나는 순간 그 상황 속에 파묻히게 됩니다. 눈을 그분께 고정시키는 한, 문제를 딛고 일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 치유되는 믿음의 접촉점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14:34-36)

예수님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옷을 입고 계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병자들이 예수의 옷 가를 만지고 병고침을 받은 것은 그들 각자의 믿음으로 인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그 순간은 바로 그들의 믿음이 표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믿으면서도 그런 일이 존재할 수도 있다고

아는데 그치는 수동적인 믿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누군가가 와서 ‘하나님은 당신을 고치실 수 있어요’라고 말하면 ‘네, 그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알고 있고 의심치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병원에 가게 되면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들의 상태가 심각해서 의사들도 포기한 사람들에게 저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말합니다. ‘저도 그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나 할 수 있으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뿐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일으켜 역사케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고치실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고치신다’는 믿음입니다. 그 순간, 즉 믿음이 실행되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그 병자들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분의 옷을 만지는 것이 그들 자신들의 믿음을 실행하게 만드는 접촉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내가 저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음을 얻으리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 그들의 믿음은 현실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음을 아는 데 그치는 수동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치유하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신약에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접촉점을 가져다 주는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장님의 눈에 진흙을 발라 주시고 가서 씻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장님은 씻는 순간 보게 될 것이라고 믿었고 이것이 바로 그의 믿음을 역사하게 만드는 접촉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도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 강 깊은 곳에 가서 일곱 번 몸을 담그고 나오면 나으리라 했습니다. 이것도 그의 믿음을 역사하게 만드는 접촉점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머리띠 혹은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거리를 지나가고 있었을 때 사람들은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나 요 위에 누우고 혹 그의 그림자라도 덮힐까 하고 바랐습니다. 이것도 믿음을 일으켜 역사하도록 만드는 접촉점이었습니다. ‘베드로의 그림자가 나를 지나가기만 해도 내가 나을 것이다’라고 믿었던 그들은 믿음을 일으켜 역사하도록 만드는 접촉점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들도 이런 믿음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실행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것을 마음속의 확신으로서만이 아니라 그 믿음대로 실행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